

리바이브이스라엘

2020년 5월 29일

두려운 마음 가진 자여

-에이탄 쉬쉬코프 (근간 「전심으로」에서 발췌)



두려움은 전 세계에 걸친 코로나바이러스 위기의 주된 부산물입니다.

저는 최근에 르우벤 리블린 이스라엘 대통령의 열렬한 메시지를 들었습니다. 그는 이스라엘 국민에게 두려워하지 말고, 별벌 떨지 말고, 불안에 굴하지 말라고 촉구했습니다. 그는 **지금 현저한 위험은 바로 우리 마음이 두려움에 굴복하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불확실한 분위기 속에서 우리는 마음을 어떻게 다스려야 할까요? 사업도 일자리도 어마어마하게 타격을 입었습니다. 미래에 어떤 희망이 있을까요? 한 이스라엘 언론인은 이 위기가 그동안 우리가 겪어왔던 다른 위협들과 얼마나 다른지를 지적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 우리가 무서워하고 있다는 것을 고백하기를 좋아하지 않는다. 그러나 나는 무서워하고 있다” (다비드 브린, 2020년 3월 16일자 <제루살렘포스트>)

[우리가 두려움이라는 주제를 다루고 있기는 하지만, 저는 우리에게 받아들이라고 명하신 건강한 종류의 두려움도 있다는 점을 짚고 넘어가야겠습니다. 그것은 **여호와께 대한 경외심**입니다. 하나님의 힘과 권세가 아주 가공할만하여 마땅히 죄와 악과 거역의 결과를 두려워하게 됨을 아는 것입니다. 이것은 궁극적인 위엄을 대면할 때 떨며 숭배하게 되는 존경심입니다.]

잘못된 종류의 두려움을 정말로 다뤄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정신적으로 정서적으로 우리를 무력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로 하여금 일어나 그 근원을 점검하고 그것을 극복하기 위해 믿음과 사랑을 구하려고 노력하도록 자극하기도 합니다. 조용하지만 치명적인 잘못된 종류의 두려움이 내 마음에 들어왔을 때 그것을 어떻게 다룰 수 있을까요?

1. 평화의 왕이 여러분과 함께 계심을 아십시오.

폭풍이 휘몰아치며 모두 침몰시킬 것 같이 제자들을 위협했습니다. 성난 바람이 물결을 일으켜 배에 물이 차게 하자, 제자들을 태우고 있던 작은 배는 살아남을 가능성이 거의 없었습니다. 예수아께서는 그 와중에 이상하게도 방해받지 않고 주무셨습니다. 그들은 살아남기 위해 필사적으로 주님을 흔들려 깨웠습니다.

“예슈아께서 깨어 바람을 꾸짖으시며 바다더러 이르시되 잠잠하라 고요하라 하시니 바람이 그치고 아주 잔잔하여지더라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하시니” (막 4:39-40)

그들의 상황 가운데 메시아의 임재는 모든 것을 바꿨습니다.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께서는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약속하셨습니다(히 13:5).

2. 온전한 사랑으로 두려움에 맞서십시오.

사도 요한은 끓는 기름에서 살아남았지만 홀로 밧모섬으로 추방당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가장 큰 계시를 받았습니다. 요한은 말했습니다,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나니 ...

우리가 사랑함은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음이라” (요일 4:18,19).

두려움의 공격을 받을 때, 그때는 우리 구주 목자의 품 안으로 달려가 안길 때입니다.

3. 환난 중에 위를 올려다 보십시오!

마지막 때의 사건들, 주님의 재림의 징조로서 성경에 나온 사건들이 이미 일어나고 있습니다.

“곳곳에 큰 지진과 기근과 전염병이 있겠고 또 무서운 일과 하늘로부터 큰 징조들이 있으리라 ... 이런 일이 되기를 시작하거든 일어나 머리를 들라 너희 속량이 가까웠느니라 하시더라” (눅 21:11,28).

우리는 사람들의 고통에 대해 눈을 감아서도 안 되고, 스트레스로 녹초가 되게 만드는 두려움에 무너져서도 안 됩니다. 예수아께서는 이런 일들이 분명 닥칠 것이지만, 당신께서 온 땅에 평화와 축복을 가져오게 될 궁극적인 재림을 가리키는 징조라는 것을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그러니 힘들고 생명을 위협하는 이 때에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심을 굳게 믿으며, 우리 옆에 아픈 이들의 삶 속에 우리를 사용해 주시도록 그분께 기도합니다.

“ ...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마 28:20).

“적은 무리여 무서워 말라 너희 아버지께서 그 왕국을 너희에게 주시기를 기뻐하시느니라” (눅 12:32).